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경험:

죽음의 고통과 삶의 의미

안경진* 박경숙**

【요약】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은 다양한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죽어가면서 겪는 고통이 무엇이며 왜 이런 고통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논의와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 연구는 노인과 노인을 돌보는 가족 그리고 돌봄 종사자들의 죽음 인식과 경험을 인터뷰하여, 죽음 인식과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갈등과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구술하는 죽음을 둘러싼 고통과 갈등을, 존재가 무너지는 상실에 대한 고통, 정리되지 못한 관계로 인한 고통,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한 삶, 나의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수동적 태도, 원치 않는 방식대로 죽는 데에 대한 두려움, 임종기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갈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죽음과 돌봄 부담, 그리고 고독사의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관계 회복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재통합하는 성찰적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들을 해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죽음에 대한 다양한 고통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성찰한 의미는 죽음을 통한 삶의 의미통합, 지금 여기의 삶의 충만함, 주체적 존재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 상호돌봄과 연대로 개념화하였다.

【주제어】 노인, 죽음, 고통, 삶의 의미, 임종의 의료화, 돌봄의 외주화

* 주저자, 연세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1047380).

<https://doi.org/10.34162/hefins.2021..26.003>

I. 서론

최근 한국에서는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법’을 시행함으로써 임종기 상황에서 과도하게 적용되는 연명의료 행위를 규제하고 존엄한 죽음을 보호할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정책들과 사회적 논의들에서 존엄한 죽음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해되는지 질문이 생긴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들과 사회적 논의들은 늙어감과 죽음 과정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실, 고통, 돌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임종기 의료적 의사결정인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의 제도적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¹⁾ 또한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은 다양한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변화된 죽음 환경에 관한 이해와 고통의 발생 맥락과 행위자의 대응에 대한 깊은 담론과 연구를 찾기 힘들다. 노인의 죽음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의 죽음 불안이 삶의 질과 정서적 상태 등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죽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죽음 태도와 관련 요인 파악 등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수행되었을 뿐이다.²⁾ 늙어감과 죽음의 고통에는 삶에서 체험하는 고유한 실존의 문제와 개인이 속해 있는 시대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죽음이 다루어지는 방식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 되어 있다. 노인이 생애 말기 경험하는 다양한 상실에 대한 몸, 마음, 관계, 의료 및 돌봄 환경, 사회 구조적 맥락 등을 포함한 종합적 이해 없이 노인의 죽음 인식과 경험의 갈등 요인과 복합적인 고통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생애 말기에 노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찾는 데 한계가 크다.

1) 김보배·김명희 (2018), pp. 95-133; 문재영·안희준 (2019), pp. 163-173 ; 안병하 (2018), pp. 143-176.

2) 김은주·이윤주 (2019), pp. 197-209; 김연하·김민주 (2019), pp.30-38.

이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의 죽어감과 죽음의 시대적·사회적 환경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겪는 고통과 갈등의 요인들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사회의 변화된 죽음 문화와 돌봄 맥락 속에서 늙어감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 노인을 돌보는 가족 그리고 노인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해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삶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노인과 노인을 돌보는 가족 그리고 돌봄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죽어가는 과정의 갈등과 고통이 무엇이며 개인의 삶의 경험, 관계,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나아가 인터뷰 참여자들이 고통의 대응 과정에서 재발견한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 죽음 인식과 경험의 맥락

1. 일상생활과 죽음의 분리

현대 기술문명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에는 자연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제한되어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에 취약하였다. 그런데 사망의 위험이 일상생활 환경의 곳곳에 있어 죽음은 오히려 풍부한 의미를 가진 것 같다. 삶과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거나 죽음에 의한 소멸에 대한 불안을 완충할 수 있는 상징적 장치들이 고안되었다. 언제 다칠지 모르는 죽음과 이별에 대비하기 위해 삶의 마무리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죽음 이후 존재가 삶에 연결되는 방식을 고민하여 다양한 상장례가 발전되었다. 상여의 꼭두, 집안에 모셔둔 사당의 위패, 그리고 제사를 통해 조상을 극진하게 모시는 행위들은 죽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해체되는 위기를 보호해

주는 다양한 장치들일 수 있다. 과거의 사람들은 타인의 죽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 수의를 만들거나 미리 짜둔 관을 닦으면서, 해결하지 못한 관계나 해야 할 일들을 찾아 스스로 삶을 정리하며 죽음을 준비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성찰과 대응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마을이 함께 준비하였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임종을 맞는 주요 공간은 고인의 집이었으며, 그 공간 속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죽음 문화에 참여했다.³⁾

그러나 20세기 중후반 급속하게 이루어진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관계 변화는 한국사회의 노부모 부양 의식과 가족의 역할 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임종기 돌봄 방식, 사망 장소, 상장례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⁴⁾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앞서 말한 상장례의 모습은 더 이상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게 되었다.⁵⁾ 죽음은 일상생활에서 분리되었고, 죽음 준비와 대응의 몫은 온전히 개인에게 맡겨졌다. 또한 의과학기술의 발전은 존재가 죽음에 의해 끝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일상생활과 죽음이 분리된 삶에서 개인은 죽음에 대한 긴장과 부담을 더 느낄 수 있다. 죽음과 삶을 통합하며 자신의 존재를 통합시키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몫이 된 상황에서 죽음에 대해 애써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타자화하면서 죽음의 고통에 대해 성찰할 기회들을 잃고 살아간다.

3) “영화 축제, 영화 학생부군신위”, <https://terms.naver.com>

4) 20세기 중후반 도시화와 공업화 과정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및 상장례 의식 변화는 다음의 논문에 노인들의 생애사 구술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박경숙 (2017), pp. 3-47; 집에서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서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은 1998년 12.8%에서 2001년 39.9%로 증가하였다. 서혜경 (2009), p. 190;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장소별 사망자 수 구성비는 병의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77.1%, 주택 13.8%, 사회복지시설 등 기타 9.1%로, 재택보다 병원사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 <https://eiec.kdi.re.kr>.

5) 임현수 (2015), pp. 16-20.

일상생활에서 가급적 죽음을 인식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죽음에 직면할 때 커다란 긴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노인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 앞에 서게 되면서 다양한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2. 변화된 죽음의 환경: 임종의 의료화, 돌봄의 외주화, 죽음의 상업화, 그리고 고독사

죽음을 돌보는 환경은 죽어가는 자에 대한 돌봄으로부터 사후돌봄에 이르는 환경을 포함한다. 임종을 돌보는 환경과 죽음을 맞는 모습 그리고 상장례의 변화는 죽음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하는 특정 시대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근대화, 도시화 속에서도 유교의 영향을 받아 경로효친 사상이 사회 전반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 노인은 집안의 어른으로 가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였으며, 노인이 중병에 들거나 노환이 깊어지면 자식들은 노인을 임종시까지 집에서 돌봤다.⁶⁾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임종기 돌봄환경과 죽음과 관련된 문화가 급격히 변화되었고 이는 ‘돌봄의 외주화’, ‘임종의 의료화’, ‘죽음의 상업화’, 그리고 고독사 형태로 나타났다.⁷⁾

임종의 의료화 현상은 죽음의 과정이 의료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의미한다.⁸⁾ 노인은 임종이 가까워지면 요양원과 집에서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 등 갖가지 튜브를 온몸에 장착한 채 의료적 처치를 받다가

6) 1990년대 초까지만해도 객사의 관념이 있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는 것을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인식하였지만, 임종장소가 병원으로 장례장소가 장례식장으로 변하면서 ‘객사’의 개념은 사라졌다. 박복순 (2013), p. 111.

7) 정경희 외 (1998); 신경아 (2011), p. 70 ; 송현동 (2003), pp. 289-314 ; 김상우 (2007), pp. 305-330 ; 서제희 외 (2018) ; 김현아 (2020).

8) Ivan Illich (1995), pp.1653-1654.

고립된 상태로 죽음을 맞게 된다.⁹⁾ 이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끝까지 밀어내어 연명된 목숨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삶’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인위적으로 ‘연명’된 삶에 대해 의미를 묻게 하였다. 임종의 의료화 상황 속에서 야기되는 연명의료는 죽음을 돌보는 상황에 대한 갈등을 증폭시켰고, 생의 마지막 결정과 관련된 자기 결정권 이슈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한 죽음에 대해 윤리적 법적 논란을 크게 일으켰다.¹⁰⁾

돌봄의 외주화 현상은 2000년대 이후 노인 돌봄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맞물려 나타났다.¹¹⁾ 돌봄 책임의 주체를 개인과 가족에서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정당화된 노인 돌봄의 사회화 과정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심화된 가족 돌봄이 갖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해소한 측면도 있지만 상품화의 논리가 가세되어 돌봄을 개인들의 삶에서 분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노인 돌봄은 효용성, 편익주의, 상업화와 맞물려 시설 돌봄 위주로 편성되고 자본주의 시장화 논리에 전적으로 내맡겨져 ‘서비스 영역’으로 상품화되었다.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돌봄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관계성이 약화되고 ‘가족의 돌봄의 부담 완화’와 ‘노인을 효율적으로 돌보는 행위’인 기술적 돌봄으로 전환되었다.¹²⁾ 돌봄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누구든지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하게 됐다. 이렇게 돌봄의 외주화 속에서 관계성의 파열과 균열을 경험하

9) 우리나라 연도별 사망 장소에 대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사람들의 74.8%가 ‘집에서 사망’이라는 통계와 비교해 볼 때 2013년 사망 장소별 사망자수 비율은 의료기관 71.5%, 주택 17.7%, 기타(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도로 등) 10.8% 순으로 사망 장소에 대한 급격한 변화와 임종의 의료화를 나타낸다. 신성식 외, 「마지막 길, 가족과 집에서 지내다 떠나고 싶을때」, 『중앙일보』, 2013. 05. 16; “2018년 출생사망 통계잠정결과”, <http://kostat.go.kr> ; 윤영호 (2014).

10) 연명의료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어,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었다.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13).

11) 정경희 외 (1998).

12) Held는 기술적 차원의 돌봄에서 관계적 맥락에서 제정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했다. Held, V. (2006).

며 노년이 되고 죽음을 맞게 된다.

죽음의 상업화는 사후돌봄을 위한 상장례가 상조업체와 장례식장으로 외주화되면서 상업화된 현상을 말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상장례는 고인의 삶에 대한 회고와 상실에 대한 애도를 통해 산자가 죽은자를 떠나보내는 의식ritual이라기보다는, 유가족들의 체면치레와 주검을 처리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로 채워지고 있다.¹³⁾ 자본주의적 속성과 인간의 다양한 욕망이 얽히고 설켜 새로운 장례문화는 고인이 아닌 유가족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편성되며 공동체의 역할은 축소된다. 노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 제사, 장법, 장례식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리 해두지 않았을 경우, 상장례를 포함한 사후돌봄에 관한 의사결정들은 고인의 평소 가치나 기대에 기초하기 보다는 가족들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처리된다.

한국사회는 홀로 죽음을 맞게 되는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만해도 대부분의 노부모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였지만, 1998년 노부모만 따로 거주하는 비율이 43.1%에서 2019년에는 71.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¹⁴⁾ 홀로 죽음을 맞게 되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 ‘좋다’ 혹은 ‘나쁘다’의 양분된 가치판단을 할 수 없지만, 홀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타자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고립되어 죽음을 경험하는 고독사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 큰 도전이 된다. 고독사는 관계의 차단 속에서 맞이한 죽음의 고통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현상이다.¹⁵⁾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지점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13) 대형병원의 특급호텔을 방불케하는 장례식장과, 계좌 이체를 통한 조의금 결제 시스템, 홈쇼핑을 통한 납골묘 분양 등 상조 상품의 홍보는 산자의 편익과 산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박복순 (2013), pp. 112-118.

14) 통계청의 한국가구 형태의 추세(1960-1990)참고, 한경혜 (2019).

15) 고독사는 중요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독사 개념은 ‘홀로 거주하던 1인 가구의 죽음’일 때 주로 사용되는데,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살다가, 죽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고독사’라고 명명한다. 정준호, 「홀로 맞는 죽음 5년새 78% 급증」, 『한국일보』, 2017. 07. 23.

관계의 단절로 인한 소외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점이다. 2017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57%는 이웃과, 73%는 가족과 왕래 및 연락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는 등 약한 사회적 관계망을 드러냈다.¹⁶⁾ 약한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고독감을 심화할 수 있다.¹⁷⁾ 노인은 혼자 죽음을 맞게 되면서 죽음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고통을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통합하지 못한 채 죽게 된다.

III. 연구 방법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이나 노쇠한 외모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시선, 매우 빠른 은퇴와 매우 긴 무역할의 기간, 오직 노인임을 부정함으로써만 세상에 끼일 수 있는 조건에서 노년은 다른 아닌 소외, 단절,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죽음이 망각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상호 돌봄의 관계성이 주변화되는 일상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일상과도 단절되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 연구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지만 노년의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주제로서 죽음을 둘러싼 갈등과 고통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노인과 노인을 돌보는 가족 그리고 돌봄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죽어가는 과정의 갈등과 고통이 무엇이며 개인의 삶의 경험, 관계, 사회적 환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나아가 인터뷰 참여자들이 고통의 대응 과정에서 재발견한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인터뷰 참여자 모집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소재 노인요양기관 등 관련

16) 독거노인의 경우 지역이웃과 자녀와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비독거노인보다 이
웃결속감과 자녀결속감이 낮게 나타났다. 김수지·김순은 (2019), p. 2.

17) 정순돌 (2001), pp. 255-274.

기관을 방문하여 면접에 참여할 대상자를 소개받거나 참여자들의 추천을 받는 눈덩이식 표집방식을 사용하였고,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여 연구 모집 광고문을 나눠주면서 대상자들을 모집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에서 다양한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과 생애말기 노인을 돌본 경험이 있는 가족 및 노인 돌봄 종사자들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노인, 가족 그리고 노인 돌봄 종사자 총 20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반구조적, 개방형 면담형태로 진행하였다. 주요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노화와 쇠퇴는 나에게 어떤 경험이며, 기능 손상 및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노년기 의존상황에 대한 돌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족의 임종기 돌봄 및 죽음에 대한 경험은 어떠했는지, 자신의 죽음을 크게 인지한 경험은 있는지, 현재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인생에 있어 의미 있는 일과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통해 새롭게 성찰한 것은 무엇인지이다.

심층면접 일정과 장소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사전 협의하였고, 면담 전 인터뷰 질문지를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전달하여 대상자들이 각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장소는 조용하고 독립된 기관의 상담실, 카페 등을 이용하였다. 심층면담은 인터뷰 참여자 한 명당 총 1~2회로 진행하였고, 면담 1회에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위의 인터뷰 질문들을 기본으로 인터뷰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 녹음한 심층면담 녹취자료와 면담 이후 작성한 연구노트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정기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해 인터뷰 참여자들의 구술내용을 분류하고 주제개념을 연결하고 의미들의 맥락들을 정리해 나갔다.

연구의 윤리적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 시작 전 서울대학교 IRB의 승인(승인번호 IRB No. 1906/002-008)을 받았다. 심층면접 내용은 인터뷰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취하였으며, 녹취록 작성 이후 인터뷰 참여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여 익명화하였다.

IV. 연구 결과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¹⁸⁾ [표-1] 노인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질병으로 인한 투약, 수술 및 투병 경험이 있었다. 또한 노인, 가족, 돌봄 종사자 대부분이 가족의 생애 말기 돌봄과 죽음 경험이 있었으며, 암, 치매 및 다양한 만성질환의 악화 등 가족의 질환과 투병 과정, 그리고 가족의 임종기 연명의료에 관한 경험을 가졌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노인, 가족, 돌봄 종사자로 구분하여 모집했지만, 노인이지만 자신의 부모, 배우자와 같이 생애 말기 가족의 돌봄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있었고, 돌봄 종사 일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성찰한 노인도 있었다. 중장년의 돌봄 종사자들은 클라이언트 돌봄 사례 뿐 아니라 가족의 관점에서 생애 말기 돌봄과 죽음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관계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해 인식하고 경험하고 죽음을 둘러싼 갈등과 고통을 해석하였다.

18) 인터뷰 내용이 중복되거나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위의 표에서 제시된 연구대상자는 연구주제와 관련되어 의미를 분석한 사례들이다.

참여자	연령	성별	만성질환	임종기 돌봄 및 죽음 경험
노인 A	60대	남성	이명, 고혈압, 어지럼증	-
노인 B	60대	남성	신장병, 고혈압	아버지: 혈관파괴되어 6년동안 와상상태로 병치레 후 사망
노인 C	70대	남성	본인:우울증, 부인: 치매	치매상태 배우자 돌봄
노인 D	70대	여성	-	6.25때 아버지 사망
노인 E	90대	여성	인공관절, 백내장 수술, 치매약 복용	딸: 연명의료 후 사망
노인 F	70대	남성	5년전 대장암 수술	어머니: 암투병 사망
노인 G	70대	남성	고혈압	장모님: 치매로 사망
노인 H	80대	여성	당뇨, 천식, 부정맥, 폐질환, 고혈압	남편: 연명의료 경험, 사망
돌봄 종사자 A	50대	남성	-	장모: 연명의료 유보 및 클라이언트 고독사 경험
돌봄 종사자 B	20대	여성	-	어머니: 친할머니 돌봄
돌봄 종사자 C	50대	여성	-	시아버지: 임종기 돌봄
돌봄 종사자 D	60대	여성	-	시아머니: 연명의료 경험 및 임종기 돌봄
돌봄 종사자 E	40대	여성	-	아버지: 임종기 돌봄 시아버님: 폐암진단
돌봄 종사자 F	60대	여성	목/허리 디스크	어머니: 골다공증, 인공관절 수술
돌봄 종사자 G	60대	여성	-	클라이언트: 고독사 경험
가족 A	50대	여성	고혈압, 관절, 척추 질환	친정어머니: 치매, 요양원

[표-1] 인터뷰 참여자 특성

인터뷰 참여자는 죽음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갈등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 죽어감과 죽음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을 겪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죽음 인식과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개념들은 [표-2]와 같다. 인터뷰 분석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갈등의 의미는 8가지 주제; 존재가 무너지는 상실 에 대한 고통, 정리되지 못한 관계로 인한 고통,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한

삶, 나의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태도, 원치 않는 방식대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임종기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갈등, 오랜시간이 걸리는 죽음과 돌봄부담, 그리고 고독사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들이 죽음에 대한 다양한 고통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성찰한 의미는 5가지 주제로, 죽음을 통한 삶의 의미통합, 지금 여기의 삶의 충만함, 주체적 존재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 상호돌봄과 연대로 개념화하였다.

죽여가는 환경: 장소, 관계, 돌봄	죽음에 대한 인식과 경험	
	죽여감과 죽음의 고통과 갈등	죽음에 대한 새로운 성찰
일상 생활과 죽음의 분리	존재가 무너지는 상실에 대한 고통	존재의 통합 : 용서와 화해
	정리되지 못한 관계로 인한 고통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한 삶	
	나의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태도 : 차단과 수동성 원치 않는 방식대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 여기의 삶의 충만함 : 삶과 존재의 유한성을 인식함
임종의 의료화	회생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임종기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갈등	주체적 존재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돌봄의 외주화	오랜시간이 걸리는 죽음과 돌봄부담	상호돌봄
고독	고독사: 관계로부터의 고립과 상실감 속에서 홀로 죽음	홀로됨에서 연대로: 존재의 통합과 새로운 관계형성

[표-2] 인터뷰 내용의 개념틀

1. 죽음 인식과 경험의 갈등과 고통

(1) 존재가 무너지는 상실에 대한 고통

죽음은 나를 이루고 있었던 몸, 정체성, 관계성 등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실의 고통이 격렬하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실은 노인의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삶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면서 복합적인 고통을 야기한다. 또한 이러한 상실의 경험은 노인의 현재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주며, 삶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생애말기 신체적 상실, 경제적 상실, 그리고 역할상실과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근원적인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늙어감과 죽어감의 과정속 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같은 절대적 무능을 느끼며, 짐스러운 존재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비생산적 존재라 인식하였다.

먼저, 건강의 악화로 인해 겪게 되는 신체적 기능 상실은 단순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고용, 빈곤 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면서 고통을 주고 있었다. 노인 A씨는 신체적 질환의 악화로 단순히 신체적 통증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아프다보니깐 제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이거는 뭐…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거예요…많이 아플때는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생각…저보다 더 아프고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때도 있습니다.”(노인 A)

돌봄 종사자인 G씨는 자신의 할머니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신체적 기능의 상실은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정서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경제적 활동의 상실은 노년기 삶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킨다. 연구에 참여한 노인 중 자산과 연금 등 노후대책을 세워놓지 못한 노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후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지만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 노인 F씨는 경비 생활을 하다가 관두면 집에 생활비를 줄 수 없어 걱정이라고 하였다. 삶의 의미의 상실 또한 크게 경험하고 있다. 노인 F씨와 G씨는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산업의 역꾼으로, 노인 E씨와 H씨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노인 F씨와 G씨의 경우 은퇴 이후 사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본인의 역할을 찾을 수 없고,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고, 노인 E씨와 H씨의 경우 장성한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고, 집을 떠나고 관계까지 소원해지자 부모로서 평생을 살아온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했다.

(2) 정리되지 못한 관계로 인한 고통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개인의 죽음은 한 개체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해석되는 공동체적 사건이다. 인터뷰 참여자 노인들은 인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오면서 감사함, 위안,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도 느끼지만, 분노, 슬픔, 두려움, 억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죽음 인식에서 표현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복합적인 고통은 그들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 가정환경, 교육, 건강, 성, 계층, 노동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체험되고 누적된 갈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현재 삶의 방식과 관계들에 영향을 주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방해하고, 상처의 기억에 집착하여 사실과 관계를 왜곡하며 현재의

삶에도 충실하지 못하게 한다. 과거를 기억하며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한을 강하게 느끼며 억울함과 원통함 그리고 관계의 허망함을 토로한다.

노인 H씨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려버린 죽은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남편과 사별한 지는 1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편이 전 재산을 날려버린 것을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고 했다. 그녀는 울화가 치미는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고되지만 미나리 다듬는 일을 자청해서 한다. 10년째 미나리 다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 대한 용서는 쉽게 되지 않는 것 같다. 납골당에 모신 남편을 찾아가면 속 썩었던 기억이 살아나 자주 가지 않는다고 한다. 노인 E씨는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에 대해 누적된 관계의 갈등과 원망을 표현했다. 살아있을 때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 관계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일상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죽음 앞에서 화해하지 못한 감정의 고통은 남은 자들의 가슴속에 한으로 새겨지게 된다.

“지 죽을줄 모르고 쇼핑백에 이것 저것 챙겨서 병원에 갔어. 갖고 가니까 위에서 출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치료하다 갑자기 코마 상태로 들어갔어. 개는 지 죽을 줄 모르고 갔어...내가 원망할 사람이 참 많았어요. 애한테 가해를 한 사람들...그랬는데 하루 저녁, 이틀, 저녁, 수의를 내것을 준비했다가 입혀줬어요. 내 옷 입고 가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입관하기 전에 수의입혀 놓고 보라 그러대요. 잘 가라고...마음이 괴로웠어요.” (노인 E)

(3)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한 삶

죽음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살다가 갑작스럽게 가족과 지인의 죽음을 경험하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면서 비로소 제한된 삶의 시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한

인식에서 힘들게 버티며 살아온 삶에 대한 보람감도 느끼지만, 반대로 허망함, 무의미함, 억울함의 감정도 갖게 한다. 인터뷰 참여 노인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존을 위해 닦치는 대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왔다고 구술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삶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고 하였다.

평생 군인의 삶을 살아온 노인 C씨는 죽음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삶은 아니었지만, 좀 더 다양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군인으로서 외골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이 있다고 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외골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을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 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무엇이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 밖에 내 책임은 없었어요. 그걸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후회스럽다…지금 이제 다 내 인생을 평가하면…내가 군인이 되었다는거. 군인이 되었다는게 평생을 군생활을 했으면서도 너무 한스럽다.” (노인 C)

변두리 극장 바에서 소위 탄파라 생활을 하면서 밤새 전자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술을 마시며 젊음을 보낸 노인 B씨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저지른 실패와 실수가 현재의 자기 모습을 규정하는 것 같아 고통스럽다고 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노인 E씨와 H씨의 경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과거의 삶을 후회스럽게 인식하고, 보상받지 못한 삶에 대한 고통이 컸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면서 과거 삶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억울함이 한으로 남아 더욱 고통스러워했다. 노인 E씨는 90평생의 인생에 대해 살 가치가 없다고 가차 없이 말했다.

(4) 나의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태도: 차단과 수동성

일상생활에서 죽음인식의 분리는 개인의 죽음을 타자화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차단하게 한다.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간접경험으로써 죽음을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객관화하여 이해하거나,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정작 나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내 존재가 이 세상에 더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한 당혹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인터뷰 참여 노인들이 자기 죽음에 관한 인식을 차단하는 이유는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과 연관된다.

노인 G씨는 60까지 살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살다 보니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고 하였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일이나 정리되지 못한 관계로 노인 A씨와 B씨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차단하고 수동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요. 왜냐면 아직도 저는 고향의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저 세상 가서 조상이 고향에 집이라도 짓고 왔냐고 물어보면 멍멍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살아있을 때 해 놓고...제가 아직 딸을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경제적으로 어렵고.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면 딸을 만나가지고”(노인 A)

“죽음을 생각을 하다보면 섬뜩해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 가는구나. 나이먹으면...죽음이 자꾸 다가오면 산속에 허름한 집...그런 데가 조용히 죽고싶어. 화장도 싫고. 너무 뜨거울 것 같고”(노인 B)

자기 죽음에 관한 인식을 차단하는 태도는 또한 자신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즉, 무로 되어버리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노인들은 ‘죽음’ 하면 떠오르는 감정에 대해서는 ‘섬뜩함’,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구나!’, ‘생각하기 싫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고 심각해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음’이라고 응답하면서 자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않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들은 자기 죽음의 인식으로 자신의 현재 삶과 존재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현재의 삶에 대한 미련, 안타까움을 느끼며 현재 삶에 더욱 몰두하고 있었다. 노인 B씨는 죽음은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섬뜩한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지금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까다로운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며 게이트볼에 몰두하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5) 원치않는 방식대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터뷰 참여자인 노인, 가족, 그리고 돌봄 종사자들은 고령화와 돌봄의 외주화 속에서 죽어가는 과정 자체에 대한 두려움 특히, 내가 원치 않는 방식대로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 참여 노인들이 인지하는 좋은 죽음 혹은 원하는 죽음의 유형 및 이미지는 현재 우리 사회의 웰 다잉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져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죽음의 이미지는 오랜 병치레를 하지 않는 죽음,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치매로 죽지 않음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 외 돌봄 종사자들의 구술에서도 삼일 아프고 죽음 등이 선호하는 죽음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경험한 죽음은 원치 않는 형태의 죽음이었다.

노인 G씨는 치매를 앓던 장모를 수발하는 과정을 보면서 치매로 죽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표현했다. 치매는 가장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방식의 죽어감의 경험으로 인식되었다. 노인 G씨는 치매로 돌아가신 장모님에 대한 경험을 회상하면서 긴 병치레나 치매에 걸려 자식에게 혹여나 폐를 끼치는 상황이 되면 차라리 부인과 함께 약을 먹고 죽을 것이라고 구술했다. 그리고

가족 A씨도 치매가 있는 친정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돌보고 있지만, 자신은 향후 요양원에 올 정도가 되면 안락사를 생각한다고 했다. 요양원에 갈 바에야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는 표현은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혹은 좋은 죽음의 이미지와 죽어감의 현실적 경험의 괴리가 크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인식을 반영할 수 있다.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집사람도 가서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방에 안들어가는 거야. 자기 엄마인데. 자기 엄마가 저기 하는데도 눈뜨고는 못 보겠더라고요...치매라는게 엄청 먹으려고 해요. 금방 먹고 밥 달라고 하고, 상판 걸어놓고 거기다 일 보고는 문에다 벽에다 다 찍어 바르고, 며느리고 누가 들어가면 귀신 들어온다고.” (노인 G)

“나는 요양원에 올 정도가 되면 안락사를 할까...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움직이지 못하면 의미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5년 정도만 큰 병 앓지 않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족 A)

(6) 희생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임종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갈등

임종의 의료화는 죽는 순간까지 인간을 의료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연명의료의 문제를 야기한다. 임종기 연명의료는 인간 존재가 해체되는 고통을 신체적인 고통으로만 인식하고, 노인이 호소하는 육체적 통증과 질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 의료적인 치료에만 매달리게 한다. 그리고 노인이 죽음의 과정 속에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전인적인 돌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임종의 의료선택에 대해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작동되기 힘든 다양한 상황이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과 가족은 평소에 최선의 돌봄이 무엇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거나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급작스러운 임종기 상황에서 부득의 연명의료를 하게 되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노인 H씨와 돌봄종사자 E씨는 연명의료를 고통스럽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한 가족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임종기 연명의료에 대해서는 참혹하다 등으로 표현했다. 돌봄 종사자 D씨는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입원함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을 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치료가 연명의료밖에 없다고 하여 연명의료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반면 돌봄종사자 A씨는 가족 모두 연명의료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장모님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연명의료에 관한 노인의 자기 결정권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연명의료 등을 포함한 부모님의 임종기 돌봄 의사결정에 관해 노인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자식의 도리상 노부모 죽음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에 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돌봄 종사자 E씨는 자신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해 미리 상의하는 것은 불효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판단을 보류하고 있었다. 돌봄종사자 C씨는 보호자들은 부모님에 대해서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의 연명의료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였다.

“근데 이미 저희가 봤을 땐 임종 시기가 왔어요. 그럼 저희가 봤을 때…여기서 편안하게 임종하시겠느냐, 병원에 가시겠느냐 하면 결국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꽂고 엄청 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병원에 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걸 저희도 파악을 하면 저희가 여기 특별 침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혼자 1인 계시면서 가족들이 오셔서 면회하시고, 면회 시간 제약 없고, 같이 계시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요…대다수의 보호자분들이 근데 잘 못하세요. 한 가닥 1%의 희망을 가지시는 거예요…자기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게 쉬운데 자녀가 부모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는게 쉽지 않더라고요.” (돌봄종사자 C)

(7) 오랜시간이 걸리는 죽음과 돌봄부담

의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은 죽음의 과정을 더욱 오래 길어지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장기간의 돌봄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된다. 인터뷰 참여 노인은 장기화된 죽음의 과정에서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긴 병치레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죽음과 돌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해 자살 등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갈등하고 있었다.

“난 병치레만 오래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 며칠만 아프다 갔으면. 아무리 오래 앓아도 효자도 뭐. 그렇게 되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것도 같아요.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것도 같아요.” (노인 F)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중병 들으면 약이라도 먹고 미리 죽겠다고 해요. 서로 고생 안시키고. 어차피 갈 거 조금 일찍 간다는 생각이지. 고생들 좀 안시키고 약이라도 먹고 죽는게 낫겠다 생각해요...매스컴도 많이 보지만 돈 없는 사람들 보통 요양원 가잖아요. 1년 살 것 반년도 못살고 간다는 거죠.” (노인 G)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죽음의 과정과 돌봄 부담에 있어 세대간 인식이 변한 것 같지만, 자식 세대에서도 부모의 임종기 돌봄 부담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돌봄 종사자 B씨는 가족을 위해 2-40년간 희생하면서 산 부모님이 어린아이 상태로 되어버릴 때 그분을 돌보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돌봄이 현실이 되면 자신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병행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갈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돌봄 종사자 E씨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친정아버지의 임종 돌봄은 수행했지만 자신의 배우자는 치매가 오면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였다.

“엄마가 워낙에 완강히 하시겠다고 하셨고…최종적으로 아빠가 와상이 되시면서는 더 힘들었던거라…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 이제는 내가 버거운 것 같다고. 그래서 요번 달 까지만 하자고 하셨는데 돌아가신거죠…남편이 치매가 왔다. (그러면)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집에서 모시는 건 제가 봤지만 관리가 안돼요.” (돌봄 종사자 E)

또한 인터뷰 참여 노인 대부분과 가족은 임종기 돌봄 책임에 대해서 가족보다는 개인 혹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시설 돌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들은 최대한 신체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였고 부분적 의존상황에서는 요양원 입소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돌봄을 희망했다. 완전 의존상황에서는 요양원 입소를 생각하지만, ‘자식이 보낸다면 할 수 없이 가야지’, ‘요양원 가면 일찍 죽는다’, ‘요양원 갈 정도 되면 죽어야지’라고 말하였다. 돌봄 종사자면서 가족 돌봄 경험이 있는 B씨와 C씨는 외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가족이 더 진정성을 가지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집이라는 공간이 노인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돌봄 종사자 E씨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는 것을 아버지가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라 해석하고 직접 자신이 돌봄을 제공하고자 했다.

(8) 고독사: 관계로부터의 고립과 상실감 속에서 홀로 죽음

사별, 이혼, 비혼 등으로 인한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에 따라 혼자 살다 죽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현상이 되었다. 비혼의 삶을 산 사람도 있고, 사별과 이혼으로 홀로 살게 된 경우도 있다. 또한 가족이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아 독거노인이 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이 혼자 사는 삶의 형태는 개인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홀로됨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타자와의 완전한 관계적 고립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는 관계를 상실한 상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후에 뒤늦게 시신이 발견되는 사례들이다. 노인 B씨는 아내와 이혼한 지 25년간 혼자 살아왔다. 자식으로 아들이 하나 있지만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 신체적 악화를 홀로 경험하면서 ‘몸이 이제 서서히 가는가보다’라고 생각하며,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 잦아지면서 혼자 올 때가 많다고 했다. 자존심이 강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다고 한 그는 자신이 요양원을 가야 될 상태가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빈집을 하나 사서 들어가 조용히 죽고 싶다고 했다. 노인 A씨는 빈곤의 상황 속에서 건강검진과 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체적 통증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거나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죽고 싶다고 하였다. 관계의 끊어짐 속에서 신체적 악화와 빈곤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인식하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지역 사회의 독거노인 통합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돌봄 종사자 G씨는 돌봄 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클라이언트의 고독사를 목격하게 되었을 때 고통스럽다고 말하였다.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보니까 어르신을 부르는데 손만 보이는 거예요. 아 집에 있고 저혈당이 왔구나 해서 112에 신고를 했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창문을 넘어가서 보니까 다 토해놓고 내 소리는 들리니까 기어 나오시다가 못 기어 나오시는 거예요. 119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회복되진 경우가 있었어요. 사망사고도 보죠...어르신이 아침이면 나와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안 받아서 열쇠수리공을 부르려고 하니까 불법이에요. 허가 없이 들어 가는게. 근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전날 도시락을 드셨어요. 아침에 돌아가셔서 최초 발견자로 경찰서 가서 조서도 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되게 오래

가더라구요. 항상 같이 만나고 이야기 나눴던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돌봄 종사자 G)

2. 죽음에 대한 재인식과 새로운 성찰

(1) 지금, 여기의 삶의 충만함: 삶과 존재의 유한성을 인식함

인터뷰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복합적인 고통과 갈등을 경험함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재 삶과 존재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었다. 노인 B씨는 이전까지는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늙어감과 죽어감을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삶을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돌봄 종사자 F씨는 지난 시절의 상처에 함몰되지 않고 용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덕을 베풀며 자신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현재는 요양보호사로서 노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돌보며 자신의 취미생활도 열심히 한다. 나아가 인터뷰 참여 노인들은 유한한 삶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타인에 대한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노인 D씨는 장애아 출산으로 인해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하며 심리적인 갈등을 많이 겪어 자살도 시도했지만 죽음을 인식하면서 현재의 삶의 조건들을 감사함으로 수용한다. 그녀는 지금, 여기의 삶을 충만하게 살기 위해 현재 노인복지관 등에서 웰 다잉 강사를 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

“살면서 항상 죽음은 기억하면서 살아야해요. 그래야 삶이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제가 하나 살아오면서 의미있다 하는게 뭐냐면…유치원을 경영을 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생각했던건데…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거기서 얼마씩 떼서 어려운 학생을 도와줬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학교에서 등록금 못 낸다고 쫓겨나고

그런게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때 부터 내가 할 수 있는건 내가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거다해서...제가 30년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삶에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노인 D)

(2) 관계의 회복: 용서와 화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성숙한 삶으로의 전향을 가능케 만든다. 물론 성숙한 삶으로의 전향과 존재의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프지만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직면하여야만 이러한 전환의 경험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터뷰 참여 노인들은 대부분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주고 받은 상처를 가슴에 겹겹이 쌓아놓고 있었다. 타인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것에서부터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까지 다양한 상처의 관계들을 묻어두고 있다. 돌봄 종사자 E씨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생에 불만이 많으면 치매가 와도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말하였다. 돌봄 종사자 F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외도하여 이혼하였고 어린 시절에는 엄마의 편애로 가슴이 아팠지만, 그 사람들을 원망하며 과거에 갇힌 삶을 사는 대신 그들을 용서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형성하며 현재의 삶을 기쁘게 누리며 살고 있다. 자신의 상처를 따듯이 감싸고 타인을 용서하며 편견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고생)** 그냥 삶의 흐름이라 생각하니까...과정이 삶의 흐름일 뿐이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 행복을 위해 즐거운 일이 있다면 도전도 하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생각하고. 좋은 일 있겠지 하고 사는거지. 집착하면 못 살아요...재밌어요. 삶은 늘 생각하면서 살고, 실천하고, 또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는 것 아닌가. 매일매일이 재밌어요.” (돌봄 종사자 F)

(3) 상호돌봄

죽음은 우리를 진정한 돌봄 관계로 초대할 수 있다. 타자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사랑과 자비의 커다란 가치를 체험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다. 죽어가는 자를 돌보는 것은 상실과 상처를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서로 치유하는 것이다. 육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적 관계 등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노인은 돌봄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통과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돌보는 이와 돌봄은 받는 이가 모두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감사한다. 돌봄 종사자 D씨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었지만 또한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노인 C씨는 치매인 아내를 돌보면서 늙어감, 죽어감, 그리고 돌봄의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다. 치매인 아내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방법을 깨닫고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돌봄 종사자 C씨는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외상으로 누워계시는 어르신들을 직업상 매일 접하게 되면서 의존기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현재의 삶을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돌봄 종사자 G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노인 중 자신의 소외됨을 참지 못해 자살까지 생각하는 어르신이 있다고 한다. 어르신들을 위해 그녀는 생활관리사로 계약된 업무 이외 말벗이 되어주고 잔심부름 자원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그녀의 전화와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는 독거노인들이 있으며, 그녀는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삶과 돌봄의 의미에 대해 배워간다. 이렇듯 돌봄 제공자들은 노인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제공하고, 노인들은 돌봄 제공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돌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화를. 종일 가도 말도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있고. 한 번씩 전화 오면 자기를 찾아줘서 반갑다고 해요...저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어르신들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밝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그렇구나, 다 풍요롭다고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분들도 있구나.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는 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내 마음이 따뜻해서 올 때가 많아요.”
(돌봄종사자 G)

독거노인 돌봄 종사자들은 클라이언트였던 노인들이 독거사한 현장을 방문하고 시신을 마무리 하는 과정을 통해 사후 돌봄을 실천하기도 했다. 돌봄 종사자 A씨는 노인돌봄통합지원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돌봄 현장에서 독거노인의 죽음을 많이 목격하게 되지만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돌봄 업무에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그들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 해 드리려 한다. 돌봄 종사자 B씨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죽음 케이스를 목격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도 많았지만 자신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좀 더 빨리 발견됨으로써 존엄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돌봄 종사자로서 보람됨을 느낀다고 한다.

(4) 주체적 존재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죽음을 타인이 아닌 내가 주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의 삶과 관계들을 능동적으로 성찰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에 의해 삶의 마지막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임종기 돌봄을 둘러싼 의료적 의사결정 뿐 아니라 요양원과 집에서의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의사결정과 함께 사후 돌봄에 관한 사항들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권해진다. 독거노인을 돌보는 돌봄 종사자 A씨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사전의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리 부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와이프랑도 제가 언젠가 갑자기 죽으면 연명치료 안하고, 이렇게 하고...이런 약속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구요. 와이프도 나도 그렇게 해줘 라는 이야기를 했고.” (돌봄 종사자 A)

상장례 등에 있어서도 인터뷰에 참여한 노인과 가족 그리고 돌봄 종사자들은 형식적인 의미의 제사보다는 가족의 화합과 감사함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 C씨는 제사보다는 살아서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노인 E씨와 돌봄 종사자 C씨는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살아있을 때 당사자에게 잘하고 진심을 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제사의 형식적인 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망자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제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두기도 하였다.

“장례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에요. 애들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죽으면은 제사 지내지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 다음 국군묘지에 묻히든, 유골함에 넣든, 성묘 한다고 왔다갔다 하지 말아라. 의무적으로 하지 말아라. 의무적으로.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강조를 해왔어요.” (노인 C)

(5) 홀로됨에서 연대로: 존재의 통합과 새로운 관계 형성

홀로됨의 시간은 노인들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와 같이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죽음 인식을 통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홀로됨의 경험은 타인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홀로됨의 시간을 통하여 노인은 자신이 지나온 삶의 의미와

관계들을 능동적으로 성찰하고 정리하면서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타자를 향해 새로운 돌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노인 A씨는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홀로됨을 인식하면서, 자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노인 C씨는 치매인 아내를 집에서 돌보면서 처음에는 울광증과 돌봄부담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했다. 하지만 아내를 홀로 돌보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화를 다스리게 되고 아내가 자신에게 배풀었던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제가 아파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깊어져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그래도 전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남을 위해 청소도 해주고, 다른 사람 잡아주기도 하고, 그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 분들이 밥을 전혀 안 드시니까 식사 안하시면 손 안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죽 사다가도 먹여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고통이 내가 좀 더 알게 되고. 지팡이는 아직 안 짚고 다니니까…새삼스레 그 분이 걷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배려심이 생기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길 가다가도 손잡아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노인 A)

V. 결론

이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죽음 인식이 봉쇄되고, 돌봄의 관계성이 약화되며 홀로 죽어가는 현대 한국인의 삶의 맥락에서 죽음을 둘러싼 갈등과 고통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과 노인을 돌보는 가족 그리고 돌봄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죽어가는 과정의 갈등과 고통이 무엇이며 개인의 삶의 경험, 관계, 사회적 환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갈등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 죽음과 삶의 의미가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해석하였다. 노인을 비롯한 인터뷰 참여자는 다양한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고통과 갈등의 의미는 존재가 무너지는 복합적인 고통, 정리되지

못한 삶으로 고통,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한 삶, 나의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태도, 원치 않는 방식으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임종기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갈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죽음과 돌봄 부담, 고독사로 개념화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죽음과 삶에 대해 새롭게 성찰한 의미는 죽음을 통한 삶의 의미 통합, 지금 여기의 삶의 충만함, 주체적 존재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 상호돌봄과 연대로 개념화하였다.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방식과 관계에 대해 후회하며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죽음의 인식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서 의식적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 죽음이라는 실존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며 겹겹이 두른 페르소나를 벗고 인간의 취약성과 유한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 일상에서 죽음이 봉쇄되어 버림으로 인해 죽음의 의미를 잘 부여하지 못하고 실존의 위기를 겪지만 죽음 앞에서 고통을 직면하는 용기를 가짐으로 다시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삶의 주체로 설 기회를 얻는다.

주체적 인간이 삶의 마지막 시기에 자율성을 구현한다는 의미는 지금 여기가 어느 때보다 소중한 말년의 삶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의식하며 그 삶을 마무리 짓느냐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죽음(인식)을 통한 삶의 재통합은 고통의 중심과 실체를 성찰하고 어떻게 개인의 실존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이 고통을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실존적 차원에서 죽음을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고, 현재 삶의 충실함을 통해 삶의 균형과 충만함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성찰한다. 죽음 앞에서 존재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타인에 대한 미움과 한의 마음을 용서하면서 정리되지 못한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자신과 타인을 인정하며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타인들과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용서를 통해 우정, 친밀함의 관계들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성찰한다. 삶에서 타인에게 베푼 선한 영향력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의 가치가 타인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죽음은 회피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살아남은 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들이 갈등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죽어감과 죽음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은 상호돌봄의 관계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물질, 편의, 생산성에 지배되는 삶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 돌봄이 삶의 밖에 외주화되지 않고 진정한 관계 수행으로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돌봄과 삶의 의미로서 생애 말기 좋은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개인과 사회가 노력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간의 죽어감과 죽음을 둘러싼 생명윤리 논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윤리·법·정책적 제도에 큰 무게를 두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생애말기의 고통을 질병과 노쇠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만 한정하고 의료적 관점에서 다루었다.¹⁹⁾ 생애말기에 관한 앞으로의 생명윤리 논의는 늙어감과 죽음의 고통에 대한 몸, 마음, 관계, 사회조직의 맥락의 상호 연관에 대한 담론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19) 박경숙·서이중·안경진 (2015), pp. 255-302.

참고문헌

- 구미래 (2015),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구인회 (2004), 「죽음의 개념과 뇌사찬반론」, 『과학사상』, 48: 51-72.
- 김보배·김명희 (2018),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1(2): 95-113.
- 김상우 (2007), 「한국의 도시화에 따른 무속적 죽음관의 변화」, 『사회과학연구』, 23(3): 305-330.
- 김수지·김순은 (2019), 「자녀 및 이웃 결속감, 고독감, 자기 방임간의 관계: 독거노인과 비독거 노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10(3): 1-16.
- 김연하·김민주 (2019), 「재가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지』, 22(1): 30-38.
- 김은주·이윤주 (2019), 「요양병원 입원 노인의 좋은 죽음 인식,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및 임종치료선호도」, 『기본간호학회지』, 26(3): 197-209.
- 김현아 (2020), 『죽음을 배우는 시간』, 창비.
-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성격규명」, 『비판 사회정책』, 37: 113-153.
- 문재영·안희준 (2019),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자율성 증진에 관한 문제제기: 미국 환자자기결정권 제정 이후 논쟁분석」,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2): 163-173.
- 박경숙 (2015), 「임종기 노인의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 49(2): 125-160.
- _____ (2017), 「서울과 나고야 노인의 생애사와 가족변화: 근대 가족의 탄생과 종언의 생애사적 자취」, 『아시아리뷰』, 6(2): 3-47.
- 박경숙·서이중·안경진 (2015), 「연명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사회와 이론』, 26: 255-302.
- 박복순 (2013), 「산 자와 죽은자의 이별 그리고 추모」, 『한국죽음학회 웰다잉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죽음맞이』,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서제희 외 (2018),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죽음여정과 경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혜경 (2009), 『노인 죽음학 개론』, 경춘사.

- 송다영 (2014),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 『한국여성학』, 30(4): 119-152.
- 송현동 (2003), 「현대 한국 장례의 변화와 그 사회적 의미, 종교연구」, 『한국종교학회』, 32: 289-314.
- 신경아 (2011),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와 노인의 경험: 재가 노인과 시설거주 노인의 경험연구」, 『한국사회학』, 45(4): 64-96.
- 안병하 (2018),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환자 인권권의 관점에서」, 『민사법학』, 84: 143-176.
- 유복희·이민아 (2017), 「대학생들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태도 및 공간 계획요소 중요도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8(1): 63-72.
- 윤영호 (2014),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 엘도라도.
- 윤항식·송다영·김인숙 (2011),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서울: 공동체.
- 임현수 (2015), 「죽음의 집에 대한 상상력」, 『죽음의 풍경을 그리다』, 한림대학교 생사학 연구소,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김지미 (2018), 「한일 복지체제 재편과 가족의 위상변화: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4(4): 61-91.
- 장하열·강성경 (2000), 「한국의 전통상례와 죽음관 연구」, 『종교교육학 연구』, 10: 265-283.
- 정경희 외 (1998), 『1998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18),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자료』.
- 정순돌 (2001), 「노인의 가족유형과 고독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255-274.
-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13),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공청회 자료집」, 『연례보고서』,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 의료법 윤리학 연구원.
- 한경혜 (2019),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19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 시몬 드 보부아르(1970), 박혜영·홍상희 역 (2002), 『노년』, 책세상.
- 아이라 바이오르크 (1998), 김연조 역 (2011), 『품위있는 죽음의 조건』, 물푸레.
- 아툴가완디 (2014), 김희정 역 (2015), 『어떻게 죽을 것인가』, 부키.
- 알렉산드로스 벨리오스, 최보문 역 (2018), 『나의 죽음은 나의 것』, 바다 출판사.

이반일리치 (2007), 박홍규 역, 『병원이 병을 만든다』, 미토.
키케로, 오홍식 역 (2002), 『노년에 관하여』, 공리.

Department of Health (2008), *End of Life Care Strategy-promoting high quality care for all adults at the end of life*, Department of Health.

Esping-Anderson, G. 1999.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Esping-Anderson, G., D Gallie, A Hemerjick and J. Myies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isty Press.

Greenberg, J., Schimel, J., and Martens, A. (2002), “Ageism: Denying the face of the future”, in T. D. Nelson (ed.),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MIT Press.

Held, V. (2006),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Oxford University Press.

Holloway, I, and Galvin, K (2017),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care*, Chichester: Wiley Blackwell.

Ivan Illich (1995), “Death Undeafed”, *BMJ: British Medical Journal*, 311(7021); 1653-1654.

네이버 지식백과, “임권택 감독 영화 축제, 박철수 감독 영화 학생부군신위”,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0.10.01.)

신성식 외, 「마지막 길, 가족과 집에서 지내다 떠나고 싶을때」, 『중앙일보』, 2013. 05. 16

정준호, 「홀로 맞는 죽음 5년새 78% 급증」, 『한국일보』, 2017. 07. 23.

통계청 (2019) “2018년 출생사망 통계잠정결과”, <http://kostat.go.kr>. (검색일: 2020.10.01.)

통계청 (2019), “2019년 사회조사결과”, <http://kostat.go.kr>. (검색일: 2020.10.01.)

통계청 (2020),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 <https://eiec.kdi.re.kr> (검색일: 2020.10.01.)

【Abstract】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the Death of the Elderly: Suffering of Death and Meaning of Life

Ahn, Kyongjin Park, Keong-Suk

As the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death evolves, people experience various forms of unexpected pain. However, neither current social discourse nor previous studies have addressed in any depth why such pain occurs, what this pain might mean, and what constitutes these sorts of pain.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various conflicts and reflections related to perceptions of death through interviews with the elderly, their families, and care workers for elderly. In this study, participants reflected on the meaning of suffering and death. The aspects of suffering and conflict, as they pertain to death, experienced by the research participants could be categorized into eight themes: suffering from loss at the end of life, suffering from unresolved relationships, experiencing strong regret and resentment, one's perception of their own impending death, the fear of dying in an unwanted manner, conflicts over medical decisions, the burden of long-term care, and loneliness. The research participants also reflected on the meaning of life and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at the end of life based on a new understanding of suffering through recognition and reflection on death. This reflection was analyzed with five themes: the integration of the meaning of life through death, the fullness of life in the 'here and now', the meaning of preparing for death, and mutual care relationships and solidarity.

【Keywords】 Elderly people, Death, Pain, Meaning of Life, Medicalization of Death, Outsourcing of Care

논문 투고일: 2021. 03. 28

심사 완료일: 2021. 04. 21

게재 확정일: 2021. 04. 21